

생애주기별 녹색복지...90개소 테마숲 조성

태교숲-유아숲체험장-생태놀이터-청소년 체험의 숲-치유의 숲-실버숲

서울시가 태교숲(엄마 뱃속)-유아숲체험장(유아기), 생태놀이터(아동기)-청소년 체험의 숲(청소년기)-치유의 숲(청·장년기)-실버숲(노년기)-녹색복지숲(전 생애)에 이르는 총 90개소 테마숲을 조성하는 내용의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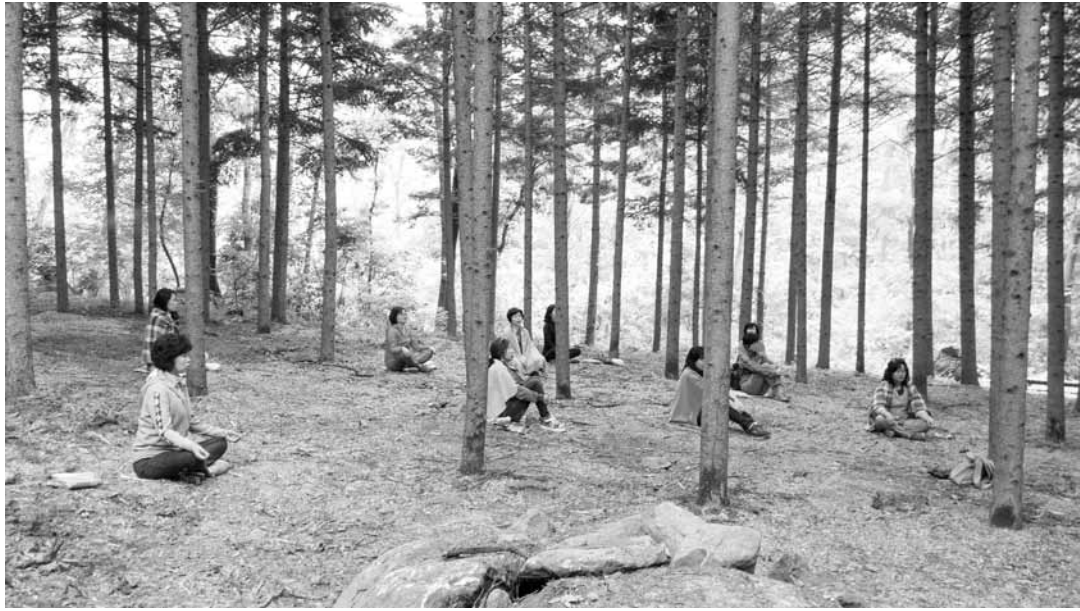
이는 앞서 시가 2013년 4월 발표한 푸른도시 선언의 후속조치다. 시는 숲, 공원 등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시민 건강과 직결된 녹색복지 공간으로 선언한 바 있다.

선언문 중 '시민은 유아에서 노년까지 녹색복지를 누립니다' 조문을 구체화하기 위한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14년 2월~12월)을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태교숲 15개소, 유아숲체험장 38개소, 생태놀이터 8개소, 청소년 체험의 숲 4개소, 치유의 숲 6개소, 실버숲 15개소, 녹색복지숲 4개소, 총 9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친 상태로 추진 과정에서 우선 추진 대상지 검토 등 세부적으로 조정해 조성한다.

특히 4개 권역(서북/동북/서남/동남)에 조성되는 녹색복지숲 내엔 생애주기별 숲의 허브 역할을 할 녹색복지센터를 1개소씩 조성한다. 여기서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프로그램 진행과 개인별 맞춤



형 건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녹색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시숲 힐링캠프, 숲 치유 프로그램, 서울둘레길 7박8일 완주 등을 개발해 운영한다.

독일, 일본, 호주 등에서도 자연요소를 복지 개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서울시처럼 녹색복지 개념과 기준, 지표를 마련해 전 생애에 걸쳐 정책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생애주기는 유·아동기(0~12세), 청소년기

(13~24세), 청·장년기(25~64세), 노년기(65세 이상) 4단계로 구분했다.

태교숲은 뱃속에서부터 피톤치드, 음이온 등의 산란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아숲체험장 및 생태놀이터는 아이들이 자연과 어울리며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 체험의 숲은 청소년들이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숲으로, 치유의 숲은 청·장년에게 슬픔과 위안을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노년층이 쉽게 접근

하고 누릴 수 있는 실버숲은 어르신들의 운동능력 향상 및 노인성 질환예방, 소외감 해소 등 심신안정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녹색복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효과도 있어 선복지의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13년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1위로 '건강'이 꼽힌 바 있다.

한편, 시는 20개 문항의 녹색복지 지표를 마련, 현재 45%(지표 9개)에 머무르고 있는 서울시민 녹색복지 체계 수준을 '18년 55%(11개)-'25년 70%(14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학술용역 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본조사)결과 현재 서울시민은 20개 문항 중 9개에 '예(45%, 누리고 있다)' 라고 응답해 중위수준(3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내가 얼마만큼 녹색복지를 누리고 있는지 기준선이 될 녹색복지 지표는 '생활권내 도보 10분 이내로 찾아 갈 수 있는 녹색공간이 있다', '녹색공간에서 매일 30분 이상 걷는다' 등 20개로 추술했다.

시는 서울의 공원(parks.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지표를 공개해 시민들이 스스로 나의 녹색복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녹색복지 지표 모니터링은 공원이용만족도 조사에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지표를 시민 스스로 녹색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기준)으로 제시해, 실천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용역 연구엔 공원녹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사회복지, 산림복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이외에도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시민단체 협력 연구, 3차에 걸친 시민 설문조사 등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녹색복지 개념, 생애주기 구분, 기준 및 지표를 마련했다.

시가 정립한 녹색복지 개념은 '모든 사람이 쉽게 녹색공간을 만나고, 더불어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4대 원칙(접근성, 연계성, 안정성, 삶의 질 향상), 6개 보장요소(생활권내 숲체험, 안전, 건강·힐링, 교육·문화, 일자리창출, 세대간 주민간 교류)를 담고 있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유아기 감성지능 발달, 아토피 치료, 심리적 안정, 각종 치유 효과 등 숲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궁무진하다"며, "콘크리트와 높은 빌딩이 익숙한 도시민들에게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정책을 펼쳐 건강과 심리적인 행복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동고동락 축제

15개 프로그램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 제공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24~25일 10시부터 22시까지 DDP에서 '동고동락'을 개최해 메르스로 인해 참체된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관광객 감소 등으로 피해 입은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누리지 못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이번 행사 '동고동락'은 '동대문에 가면(go) 더불어 즐겁다'라는 의미로 서울의 대표 문화예술 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메르스 극복 기념행사로 기획했다.

'동고동락' 도심 속에서 만나는 품격 높은 15개의 특별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짜여졌다. 먼저, 비보잉, 타악퍼포먼스, 관악밴드,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우선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공연은 25명만으로 구성된 이동형 타악공연인 라퍼커션으로 화려

한 브라질 삼바카니발을 재현한 퍼포머들이 두타에서 시작해 DDP 어울림광장으로 이동하며 드럼, 심벌즈, 캐스터네츠 등 타악기를 연주하며 한여름 무더위를 날린다.

특히 행사 양일간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서울시 대표 B-boy단 갬블러크루와 드리프터즈크루의 퍼포먼스는 젊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되고, 퓨전국악팀(24:도도팀/ 25:고리팀)의 공연은 관람 후 시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거리예술시즌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당 달다, 창작중심 단디를 비롯한 국내 대표 거리예술 단체 7개 팀의 주요 작품들도 선보인다.

그밖에 CJ문화재단이 발굴한 젊은 뮤지션 마호가니, 뉴티앤스 등을 만날 수 있는 인디밴드 공연이 준비돼 있고, DDP 8거리에는 거리예술단의 마술쇼, 마인, 인형극 등이 펼쳐지는 거리예술존 등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DDP 8거리 및 미래로 위에서는 재미난 푸드트럭, 느린농부장터, DDP즐거움 주말장, 이

웃집찰스 아노의 크레페 가게 등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맛있고 즐거운 먹거리를 제공한다.

세련된 감각의 거리 맛집들이 한 곳에 모여 음료, 디저트 등 입맛대로 골라 즐기는 재미난 푸드트럭,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DDP 스타일 건강 먹거리 장터인 느린농부장터,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함께 유니크한 디자인 제품과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 주말장, KBS '웃집찰스' 프랑스 출연진 아노의 크레페 가게가 오픈돼 무더위와 메르스로 지친 시민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준비됐다.

즐길거리, 먹거리에 이어 이번 '동고동락' 축제에서는 DDP의 알찬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볼거리가 가득하다.

간송문화 4부 '매, 난, 국, 죽, 선비의 향기'에서는 세종대왕의 고손으로 태어난 왕실출신 문인인 이정이 비단에 금으로 죽, 매, 난을 그리고 자작시를 함께 엮어 만들어낸 시화첩 '삼정첩', 오만원권 뒷면에 인쇄돼 더욱 유명한 이정의 '풍죽' 외에도 김홍도의 '백매', 어몽룡의 '목매', 유덕장의 '설죽' 등 사군자를 사랑한 옛 문인들의 작품들을 통해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작품의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에스프리 디올은 세계적인 브랜드이자 근대 북

식사를 대표하는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과 예술적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전시로 과거부터 최근 작품까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디올의 명성과 천재적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전시이다. 특히, 오프 푸워드 드레스, 향수, 액세서리, 사진과 기록 등 디올의 다양한 작품이 서도호, 이불, 김혜련, 김동유, 박기원, 박선기 작가 등 한국의 주요 아티스트 6인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전시된 점 또한 눈여겨 볼만 하다.

이외에도 연인이나 가족들에게 한여름의 추억을 선물해 줄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푸른 잔디와 음악이 있는 DDP 잔디언덕에 DDP 디자인 콜렉션 가구를 체험하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피크닉테이블 비롯해,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 메르스 전사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낼 응원 메시지를 에코백과 배지에 직접 담아 전하는 뜻 깊은 행사도 준비했다.

또한, 내전으로 고통 받는 시리아 난민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유니세프 시리아난민 VR체험존에서는 낯선 땅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그 밖에도 전시티켓, 구매고객은 할인가에 참여할 수 있는 케리커져 이벤트 등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김태우 기자

육아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곧 나를 키우는 것이라는 걸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육아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선물하는지 역시 지난날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다. 소년에서 어른으로, 부모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 육아의 기쁨과 소중함을 나누고 싶었다. 『프롤로그』 중에서

부모는 아이를 낳고, 아이는 부모를 성장시킨다 200만 독자가 열광한 솔이 아빠의 필살 육아 에세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



달바벥가 그렸어

김진형 지음 | 384쪽 | 13,800원



소담출판사